

삼바사와경

(Sabbāsavasuttam -All Desires-모든 번뇌의 경, 맞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왓띠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뻬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3.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에 관해 설할 것이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명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대답했다.

4.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잘 보는가?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는 것(如理作意)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3. Jānato ahaṃ bhikkhave passato āsavānaṃ khayaṃ vadāmi no ajānato no apassato. Kiñca bhikkhave jānato kiṃ passato āsavānaṃ khayō hoti? Yoniso ca manasikāraṃ ayoniso ca manasikāraṃ.

수행승들이여, ①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②수호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③수용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④인내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⑤피함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⑥제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⑦수행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

4. Atthi bhikkhave āsavā ①das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②saṃvar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③paṭisev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④adhivā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⑤parivajj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⑥vinod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⑦bhāvanā pahātabbā.

...이 7가지를 계정례로 나누어 보면 계는 ②③④⑤ 정은 ⑥⑦ 해는① 에 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5. 수행승들이여, ①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거룩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른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므로,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는다.

So manasikaraṇīye dhamme appajānanto amanasikaraṇīye dhamme appajānanto y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manasi karoti, ye dhammā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na manasi karoti.

6.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만, 정신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쓸 때,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만, 정신을 쓰고 있는 것들이다.

6. Katame ca bhikkhav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uppajjati, uppanno vā kām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bhavāsavo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vaḍḍhati. Im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7.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써야만 할 것들이지만, 정신을 쓰고 있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써야만 할 것들이지만, 정신을 쓰고 있지 않은 것들이다.

7. Katame ca bhikkhav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na uppajjati, uppanno kām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bhav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hīyati. Ime dhammā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8.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

8. Tassa a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manasikārā 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amanasikārā, anuppannā ceva āsavā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vaḍḍhanti.

그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쓴다. -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없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여섯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겨난다.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

또는 이와 같이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10. Tassa evaṃ ayoniso manasi karoto channaṃ diṭṭhinaṃ aññatarā diṭṭhi uppajjati: atthi me attā'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natthi me attā'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ttanā' va attānaṃ sañjānāmi'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ttanā'va anattānaṃ sañjānāmi'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nattanā'va attānaṃ sañjānāmi'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견해의 험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이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Atha vā pana'ssa evaṃ diṭṭhi hoti. Yo me ayaṃ attā vado vedeyyo tatra tatra kalyāṇapāpakānaṃ kammaṇaṃ vipākaṃ paṭisaṃvedeti. So kho pana me ayaṃ attā nicco dhuvo sassato avipariṇāmadhammo sassatisamaṃ tatheva ṭhassati'ti. Idaṃ vuccati bhikkhave diṭṭhigataṃ diṭṭhigahanaṃ⁵ diṭṭhikantāro⁶ diṭṭhivisūkaṃ diṭṭhivipphanditaṃ diṭṭhisamyojanaṃ. Diṭṭhisamyojanasamṃyutto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na parimuccati jātiyā jarāmaraṇena⁷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⁸ na parimuccati dukkhasmā'ti vadāmi.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체험하는데, ---여기까지는 허락하지만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주하고 항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견해는 너무 나간 것으로 아뜨만론이 된다.)

9.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거룩한 이를 인정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잘 알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을 잘 알고 참사람에 이끌리고,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는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을 쓰지 않고, 정신을 써야 할 것에 정신을 쓴다.

10.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11. 수행승들이여,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만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만 할 것들이다.

12.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고, 정신을 써야 할 것에 정신을 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끊어진다. 그는 이와 같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쓴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게 정신을 씀으로써 세 가지의 결박,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환상, 매사의 의심,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14. Tassa a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amanasikārā 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manasikārā anuppannā ceva āsavā na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hiyanti. So idaṃ dukkhan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samudayo'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nirodho'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nirodhagāminīpaṭipadā'ti yoniso manasi karoti. Tassa evaṃ yoniso manasikaroto tīṇi saṃyojanāni pahiyanti: sakkāyadiṭṭhi vicikicchā silabbataparāmāso.³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여기서 보듯이 수다함은 통찰지로 3 가지 족쇄를 끊음으로서 성취된다.)

13. 수행승들이여, 단속, 수호②saṃvarā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1)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시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2)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청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청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3)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후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후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후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4)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미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미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미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5)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촉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촉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촉각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6)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정신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 수행승들이여, 정신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정신능력을 잘 다스려서 수호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잘 다스려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14. 수행승들이여, 수용③paṭisevanā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거나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기 위하여 의복을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연회를 위하거나 만식을 위하거나 장식을 위하거나 허례를 위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거나 건강을 지키거나 상해를 방지하거나 지나간 고통은 소멸되고 새로운 고통은 일어나지 않고 허물이 없고 안온한, 청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을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거나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계절의 위난을 제거하거나 홀로 명상하기 위하여 깔개를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이미 생겨난 질병의 고통을 막고 최상의 안온을 얻기 위하여 필수약품을 수용한다. 수행승들이여, 수용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용하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수용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4 가지 필수품의 수용)

15. 수행승들이여, 인내④adhivāsana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나 더위나 기아나 기갈이나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 매도하고 비방하는 말을 건네받음, 쓴 맛, 신 맛, 뚝은 맛, 매운 맛, 불만, 불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참아내는 것처럼 신체의 피로움을 인내한다. 수행승들이여, 인내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인내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16. 수행승들이여, 피함⑤parivajjana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사나운 꼬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말뚝, 가시덤불, 갯도, 절벽, 웅덩이, 늪지를 피한다. 총명한 길벗은 앞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리에 앉는 자, 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가는 자, 사귀기에 적당하지 않은 악한 친구와 사귀는 자를 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는 성찰하여 이와 같은 적당하지 않은 자리, 적당하지 않은 장소, 악한 친구를 피한다. 수행승들이여, 피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피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17. 수행승들이여, 제거⑥vinodana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념을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분노의 사념을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폭력의 사념을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린다. 수행승들이여, 제거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제거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제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18. 수행승들이여, 수행⑦bhāvanā 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마음챙김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희열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며,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향하는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수행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들을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7 각지의 수행)

19.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관찰에 의해서 끊고,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호에 의해서 끊고, 수용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용에 의해서 끊고,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인내에 의해서 끊고,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피함에 의해서 끊고, 제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제거에 의해서 끊고,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행에 의해서 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모든 번뇌를 잘 다스려서 수호한 자, 갈애를 끊고 결박을 푼 자, 올바르게 교만을 끊어서 괴로움을 끝낸 자라고 불린다.

20.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지냈다.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Mūlapaṇṇāsako

1.Mūlapariyāy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1.1.2.

2. Sabbāsavasuttaṃ

1. Evaṃ me⁷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Bhagavā etadavoca.

2. Sabbāsavasaṃvarapariyāyaṃ vo bhikkhave desissāmi.⁸ Taṃ [PTS Page 007] [\q 7/] suṇātha sādhucaṃ manasikarotha bhāsissāmi'ti. Evaṃ 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Bhagavā etadavoca.

3. Jānato ahaṃ bhikkhave passato āsavānaṃ khayaṃ vadāmi no ajānato no apassato. Kiñca bhikkhave jānato kiṃ⁹ passato āsavānaṃ khayoti?¹⁰ Yoniso ca manasikāraṃ¹¹ ayoniso ca manasikāraṃ. Ayoniso bhikkhave manasikaroto anuppannā ceva āsavā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vaḍḍhanti. Yoniso¹² ca kho bhikkhave manasikaroto anuppannā ceva āsavā na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hīyanti.¹³

7. Evamme syā, [PTS] 8. Desessā, sīmu. 9. Kiñca, machasaṃ. 10. Khayaṃ vadāmi, machasaṃ. 11. Manasikāro, katthaci. 12. Yoniso ca bhikkhave, syā. 13. Pahīyanti, syā. 14. [Ed.] Abhibhūto [PTS]. [Nld also reads] abhibhūto [but records as var.Lect.] Abhibhuto [from] ma [and] sī

[BJT Page 020] [\x 20/]

4. Atth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atthi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adhvās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parivajj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atthi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5. Katame ca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ariyānaṃ adassāvī ariyadhammassa akovido ariyadhamme avinīto sappurisānaṃ adassāvī sappurisadhammassa akovido sappurisadhamme avinīto manasikaraṇīye dhamme nappajānāti amanasikaraṇīye dhamme nappajānāti. So manasikaraṇīye dhamme appajānanto

amanasikaraṇīye dhamme appajānanto y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manasi karoti, ye dhammā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na manasi karoti.

6. Katame ca bhikkhav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uppajjati, uppanno vā kām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bhavāsavo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vaḍḍhati. Im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7. Katame ca bhikkhav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na uppajjati, uppanno kāmāsavo pahīyati¹, anuppanno vā bhav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hīyati. Ime dhammā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8. Tassa [PTS Page 008] [ṅ 8/] a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manasikārā 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amanasikārā anuppannā ceva āsavā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vaḍḍhanti.

1. Pahiyati syā.

[BJT Page 022] [x 22/]

9. So evaṃ ayoniso manasi karoti: ahosiṃ nu kho ahaṃ atītamaddhānaṃ. Na 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in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athannu kho ahosiṃ atītamaddhānaṃ. Kiṃ hutvā kiṃ ahosiṃ nu kho ahaṃ atītamaddhānaṃ. Bhavissāmi nu kho ahaṃ anāgatamaddhānaṃ. Na 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in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athannu kho bhavissāmi anāgatamaddhānaṃ. Kiṃ hutvā kiṃ bhavissāmi nu kho ahaṃ anāgatamaddhānanti.¹ Etarahi vā paccuppannaṃ² addhānaṃ ajjhattaṃ kathaṃkathī hoti: ahaṃ nu kho'smi no nu kho'smi kinnu kho'smi kathaṃ nu kho'smi ayaṃ nu kho satto kuto āgato so kuhiṃ gāmī bhavissatī'ti.

10. Tassa evaṃ ayoniso manasi karoto channaṃ diṭṭhīnaṃ aññatarā diṭṭhi uppajjati: atthi me attā'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natthi me attā'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ttanā' va attānaṃ sañjānāmī'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ttanā'va anattānaṃ sañjānāmī'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nattanā'va attānaṃ sañjānāmī'ti vā'ssa saccato thetato diṭṭhi uppajjati. Atha vā pana'ssa evaṃ diṭṭhi hoti. Yo³ me ayaṃ attā vado vedeyyo⁴ tatra tatra kalyāṇapāpakānaṃ kammānaṃ vipākaṃ paṭisaṃvedeti. So kho pana me ayaṃ attā nicco dhuvo sassato avipariṇāmadhammo sassatisamaṃ tatheva ṭhassatī'ti. Idam vuccati bhikkhave diṭṭhigataṃ diṭṭhigahanaṃ⁵ diṭṭhikantāro⁶ diṭṭhivisūkaṃ diṭṭhivipphandaṃ diṭṭhisamyojanaṃ. Diṭṭhisamyojanasaṃyutto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na parimuccati jātiyā jarāmaraṇena⁷ sokehi paridevehi dukkhehi domanassehi upāyāsehi,⁸ na parimuccati dukkhasmā'ti vadāmi.

11. Sutavā ca kho bhikkhave ariyasāvako ariyānaṃ dassāvī ariyadhammassa kovido ariyadhamme suvinīto sappurisānaṃ dassāvī sappurisdhammassa kovido sappurisdhamme suvinīto manasikaraṇīye dhamme pajānāti amanasikaraṇīye dhamme pajānāti. So manasikaraṇīye dhamme pajānanto amanasikaraṇīye dhamme pajānanto ye dhammā [PTS Page 009] [\q 9/] na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na manasi karoti, ye dhammā manasikaraṇīyā te dhamme manasi karoti.

1. Anāgatamaddhānaṃ katthaci. 2. Paccuppannamaddhānaṃ machasaṃ. 3. So, katthaci. 4. Attāva vedeyyo, syā. 5. Diṭṭhigahaṇaṃ, syā. 6. Diṭṭhikantāraṃ siṃ, [PTS] 7. Jarāya maraṇena, machasaṃ. Syā. 8.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ehi, syā.

[BJT Page 024] [\x 24/]

12. Katame ca bhikkhav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uppajjati, uppanno vā kām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bhavāsavo1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vaḍḍhati. Ime dhammā na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na manasi karoti.

13. Katame ca bhikkhave dhammā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Yassa bhikkhave dhamme manasi karoto anuppanno vā kām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kām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bhavāsavo2 na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avijjāsavo na uppajjati, uppanno vā avijjāsavo pahīyati. Ime dhammā manasikaraṇīyā ye dhamme manasi karoti.

14. Tassa a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amanasikārā manasikaraṇīyānaṃ dhammānaṃ manasikārā anuppannā ceva āsavā na uppajjanti, uppannā ca āsavā pahīyanti. So idaṃ dukkhan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samudayo'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nirodho'ti yoniso manasi karoti, ayaṃ dukkhanirodhagāminīpaṭipadā'ti yoniso manasi karoti. Tassa evaṃ yoniso manasikaroto tīṇi saṃyojanāni pahīyanti: sakkāyaditṭhi vicikicchā sīlabbataparāmāso.³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15. Katame ca bhikkhave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ṅkhā yoniso cakkhu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⁴ hi'ssa bhikkhave cakkhundriyasaṃvaraṃ as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ū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cakkhu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Paṭisaṅkhā yoniso soti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 hi'ssa bhikkhave sotindriyasaṃvaraṃ as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ū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soti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Paṭisaṅkhā yoniso ghāni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 hi'ssa bhikkhave ghānindriyasaṃvaraṃ as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ū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ghāni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Paṭisaṅkhā yoniso jivhi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⁴ hi'ssa bhikkhave jivhindriyasaṃvaraṃ as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ū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jivhi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Paṭisaṅkhā yoniso kāyi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 hi'ssa bhikkhave kāyindriyasaṃvaram 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uma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kāyi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Paṭisaṅkhā yoniso manindriyasaṃvarasaṃvuto viharati. Yaṃ hi'ssa bhikkhave manindriyasaṃvaram 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uma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manindriya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Yaṃ hi'ssa bhikkhave saṃvaram aṃvutassa viharato uppajjeyyumaṃ āsavā [PTS Page 010] [\q 10/] vighātapariḷāhā saṃvarasaṃvutassa vihar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1.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vaḍḍhati, anuppanno vā, machasaṃ. Syā. 2. Na uppajjati, uppanno vā bhavāsavo pahīyati. Anuppanno vā, machasaṃ. Syā. 3. Sīlabbatta syā. 4. Yañhi'ssa, machasaṃ. Syā.

[BJT Page 026] [\x 26/]

16. Katame ca bhikkhave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ṅkhā yoniso cīvaraṃ paṭisevati: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ḍaṃsamakasavātātapasiriṃsapasamphassānaṃ¹ paṭighātāya yāvadeva hirikopīnapaṭicchādanatthaṃ. Paṭisaṅkhā yoniso piṇḍapātaṃ paṭisevati: neva davāya na madāya na maṇḍanāya na vibhūsanāya yāvadeva imassa kāyassa ṭhitiyā yāpanāya vihiṃsūparatiyā² brahmacariyānuggahāya. Iti purāṇaṅca vedanaṃ paṭihaṅkhāmi navaṅca vedanaṃ na uppādessāmi yātrā ca me bhavissati anavajjatā ca phāsuvihāro cā'ti³. Paṭisaṅkhā yoniso senāsanaṃ paṭisevati: yāvadeva sītassa paṭighātāya uṇhassa paṭighātāya ḍaṃsamakasavātātapasiriṃsapasamphassānaṃ paṭighātāya yāvadeva utuparissayavinodanaṃ⁴ paṭisallānārāmatthaṃ.

Paṭisaṅkhā yoniso gilānapaccayabhesajjaparikkhāraṃ paṭisevati: yāvadeva uppannānaṃ veyyābādhikānaṃ vedanānaṃ paṭighātāya abyāpajjhāparamatāya.⁵ Yaṃ hissa bhikkhave apaṭisevato⁶ uppajjeyyuma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Paṭisev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17. Katame ca bhikkhave āsavā adhvāsā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ṅkhā yoniso khamo hoti sītassa uṇhassa jighacchāya pipāsāya ḍaṃsamakasavātātapasiriṃsapasamphassānaṃ duruttānaṃ durāgatānaṃ vacanapathānaṃ uppannānaṃ sārīrikānaṃ vedanānaṃ dukkhānaṃ tippānaṃ⁷ kharānaṃ kaṭukānaṃ asātānaṃ amanāpānaṃ pāṇaharānaṃ adhvāsakajātiko 8 hoti. Yaṃ hissa bhikkhave anadvhāsāyato uppajjeyyuma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adhvāsā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adhvāsānā pahātabbā.

18. Katame ca bhikkhave āsavā parivajj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ṅkhā yoniso caṇḍaṃ hatthiṃ parivajjeti. Caṇḍaṃ assaṃ parivajjeti. Caṇḍaṃ goṇaṃ parivajjeti. Caṇḍaṃ kukkuraṃ parivajjeti ahiṃ khāṇumaṃ [PTS Page 011] [\q 11/] kaṇṭakādhānaṃ⁹ sobbhaṃ papātaṃ candanikaṃ oḷigallaṃ. Yathārūpe anāsane nisinnaṃ yathārūpe agocare

carantaṃ yathārūpe pāpake mitte bhajantaṃ viññū sabrahmacārī pāpakesu tḥānesu okappeyyuṃ. So tañca anāsanaṃ tañca agocaraṃ te ca pāpake mitte paṭisañkhā yoniso parivajjeti. Yaṃ hissa bhikkhave aparivajjayato uppajjeyyu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Parivajja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parivajjanā pahātabbā.

1. Sarīsapa machasaṃ. 2. Vihiṃsuparatiyā syā 3. Phāsuvihāro ca, machasaṃ 4. Vinodana, machasaṃ. Ca1. Vinodanaṃ paṭisallānārāmatthaṃ [BJT], [PTS]. Vinodanapaṭisallānārāmatthaṃ [Nld] 5. Abyāpajja katthaci Ca2. Abyāpajjha [BJT]. Abyābajjha [PTS], abyābajjha [Nld]

([Note. We correct the 'p' in] abyāpajjha [of the BJT text to 'b' in agreement with the PTS and Nld readings. We regard] abyābajjha [as the correct reading because it is derived from the basic Pali word] vyābādha vyābādhyā vyābajjha. ([In view of this process of derivation, we opt the final reading to be] avyābajjha. [At the same time it is astonishing to find the derivative from the Pali word] vyāpāda [written as] -vyāpajjha([with an unjustifiable 'jjh' in the combination] avyāpajjha. [The two words appear to be the result of a considerable amount of mutual confusion].

6. Appaṭisevato machasaṃ, syā 7. Tibbānaṃ machasaṃ 8. Adhivāsikajātiko syā 9. Kaṇṭakaṭṭhānaṃ machasaṃ, syā

[BJT Page 028] [\x 28/]

19. Katame ca bhikkhave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ñkhā yoniso uppannaṃ kāmavitakkaṃ nādhivāseti pajahati vinodeti byantīkaroti¹. Anabhāvaṃ gameti. Uppannaṃ vyāpādavittakkaṃ² nādhivāseti pajahati vinodeti byantīkaroti anabhāvaṃ gameti. Uppannaṃ vihiṃsāvittakkaṃ nādhivāseti pajahati vinodeti byantīkaroti anabhāvaṃ gameti. Uppannuppanne pāpake akusale dhamme nādhivāseti pajahati vinodeti byantīkaroti anabhāvaṃ gameti. Yaṃ hissa bhikkhave avinodayato uppajjeyyu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Vinoda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20. Katame ca bhikkhave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Idha bhikkhave bhikkhu paṭisañkhā yoniso sat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³. Paṭisañkhā yoniso dhammavicaya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Paṭisañkhā yoniso viriya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³. Paṭisañkhā yoniso pīt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Paṭisañkhā yoniso passaddh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Paṭisañkhā yoniso samādhi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Paṭisañkhā yoniso upekkhā sambojjhaṅgaṃ bhāveti vivekanissitaṃ virāganissitaṃ nirodhanissitaṃ vossaggapariṇāmiṃ.

Yaṃ hissa bhikkhave abhāvayato uppajjeyyumaṃ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bhāvayato evaṃsa te āsavā vighātapariḷāhā na honti. Ime vuccanti bhikkhave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21. Yato5 ca bhikkhave bhikkhuno ye āsavā dassanā pahātabbā te dassanā pahīnā honti. Ye āsavā saṃvarā pahātabbā te saṃvarā pahīnā honti. Ye āsavā paṭisevanā pahātabbā te paṭisevanā pahīnā honti. Ye āsavā adhvāsānā pahātabbā te adhvāsānā pahīnā honti. Ye āsavā parivajjanā [PTS Page 012] [v 12/] pahātabbā te parivajjanā pahīnā honti. Ye āsavā vinodanā pahātabbā te vinodanā pahīnā honti. Ye āsavā bhāvanā pahātabbā te bhāvanā pahīnā honti. Ayaṃ vuccati bhikkhave bhikkhu sabbāsavasamaṃvarasamaṃvuto viharati, acchecchi taṇhaṃ, vāvattayi saṃyojanaṃ, sammā mānābhisaṃmayā antamakāsi dukkhassā'ti.

22.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nti.

Sabbasavasuttaṃ dutiyaṃ.

1. Byantiṃ karoti katthaci, byantīkaroti [PTS] Ca1 byantīkaroti [BJT], byantīkaroti [Nld] 2. Byāpādavittakkaṃ machasaṃ, [PTS], syā 3. Vossaggapariṇāmaṃ syā 4. Upekhā sīmu 5. Yato kho machasaṃ, [PTS]

Majjhima Nikāya I

1. 2. Sabbāsavasuttaṃ (2) All Desires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a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i.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hikkhus: "Monks, I will teach the method of restraining the mind from all desires, listen and attend carefully.

"Bhikkhus, I declare the restraining of the mind from all desires, knowing and seeing, not without knowing and seeing. Knowing and seeing, what is it? 'Knowing and seeing with wise attention and with unwise attention.' When attending unwisely non-arisen desires arise, and arisen desires grow. When attending wisely non-arisen desires do not arise, and arisen desires fade. Bhikkhus,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reflecting wisely,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with restraint,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by indulging,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by enduring,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by avoiding, and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by dispelling, and there are desires to be turned out by development.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reflecting wisely? Here, bhikkhus, the ordinary man has not seen Noble Ones and Great Men, not clever and not tamed in their teaching, does not know the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and should not be thought. So he thinks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nd does not think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Bhikkhus, what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re thought?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sensual desires, and thoughts that develop arisen sensual desires.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desires `to be' and thoughts that develop arisen desires `to be'.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desires of ignorance and thoughts that develop arisen desires of ignorance. These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re thought.

“Bhikkhus, what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are not thought? They are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arisen sensual desires and thoughts that diminish arisen sensual desires,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arisen desires `to be' and thoughts that diminish arisen desires `to be', and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arisen desires of ignorance and thoughts that diminish arisen desires of ignorance. These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are not thought. Thinking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nd not thinking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non-arisen desires arise and arisen desires develop.

“He thinks unwisely in this manner: `Was I in the past or wasn't I in the past? Who was I in the past? How was I in the past? Become who and who was I in the past? Will I be in the future, or will I not be in the future? What will I be in the future? How will I be in the future? Who will I become and who will I be in the future?’

“Or doubts arise about the self in the present : “Am I, or am I not? What am I? How am I ? From where did this being come, where will it go?’ To whoever thinking unwisely in this manner, one of these six views arises: To him a view arises perfect and clear, `I have a self.' Or, `I have no self.' Or, `with the self I know the self.' Or, `with the self I know the no-self.' Or, `with no-self I know the no-self.' Or this view arises to him: `This my self which speaks and feels and experiences the results of good and bad actions done here and there; it is permanent and eternal and would not change.' Bhikkhus, this is called the soul view, the thicket of speculations, the wilderness of speculations, the bond of views. O! Bhikkhus, the ordinary man bound by these views is not released from birth, decay, death, sorrow, lament, unpleasantness, displeasure, and distress. He is not released from unpleasantness, I say.

“Bhikkhus, the learned disciple who has seen Noble Ones and Great Men, clever and trained in their Teaching, knows the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and knows the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He does not think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nd he thinks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What are the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sensual desires and develop arisen sensual desires.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desires `to be' and develop arisen desires `to be' Those thoughts that arouse non-arisen desires of ignorance and develop arisen desires of ignorance. These thoughts should not be thought.

“What are the thoughts that should be thought?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arisen sensual desires and diminish arisen sensual desires.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

arisen desires to `to be' and diminish arisen desires `to be'. Those thoughts that do not arouse non-arisen desires of ignorance and diminish arisen desires of ignorance. These thoughts should be thought.

“When he does not think thoughts that should not be thought and thinks those that should be thought, non-arisen desires do not arise and arisen desires fade. Then he wisely thinks, `This is unpleasant,' wisely thinks, `This is the arising of unpleasantness,' wisely thinks, `This is the cessation of unpleasantness,' and wisely thinks, `This is the path to the cessation of unpleasantness'. When he thinks in this manner three bonds fade away: the view about a self, doubts, and the bindings of virtues. Bhikkhus, these are the desires that should be dispelled by wise thinking.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through restraint? Her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eye.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eye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ear.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ear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nose.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nose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tongue.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tongue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body.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body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bides 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mind. To one abiding unrestrained in the mental faculty of the mind would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to one restrained they do not arise. Bhikkhus, to one abiding restrained,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do not arise. These are th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through restraint.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through indulging? Her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uses the robe to ward off cold, heat, the stings of gadflies and yellow flies, to ward off the heat of the air and the touch of creeping things and for the purpose of covering the loins out of shame. Wisely reflecting, partakes of the morsel food, not for play, for intoxication or to look beautiful, [but] to support the body, without greed for tastes, as support to lead the holy life. While partaking the food reflects `Giving up the earlier feelings would not arouse new, may it be for a faultless light living'. Wisely reflecting, partakes the dwelling to ward off the cold, heat, the sting of gadflies and yellow flies, to ward off the burning air, creeping things, and to end the troubles from the seasons, and for seclusion. Wisely reflecting, partakes requisites when ill to ward off oppressive feelings. When not using them may arise desires of distress and burning, using them they would not arise. Bhikkhus, these are th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indulging.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enduring? Her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endures cold, heat, hunger, thirst, the sting of gadflies, yellow flies, heat of the air, the touch of creeping things, the piercing touch of badly enunciated words, sharp rough piercing bodily feelings and unwelcome, disagreeable feelings that end life. To one not enduring these may arise desires of burning and distress, to one enduring them desires do not arise. These are th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enduring.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avoiding? Her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avoids rough elephants, horses, bulls, dogs, serpents, uneven thorny roads, pits, depressions, pools, and village pools. And sitting on unsuitable seats, pasturing on unsuitable pastures and associating evil friends, these which the wise co-associates in the holy life denounce, he wisely reflecting should avoid. Bhikkhus, to one not avoiding these may arise desires of burning and distress, to one avoiding them desires do not arise. These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avoiding.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dispelling? Here, the bhikkhu reflecting wisely does not entertain arisen sensual thoughts, dispels them, does not let them rise again; reflecting wisely does not entertain arisen angry thoughts, dispels them, does not let them rise again; reflecting wisely, does not entertain arisen hurting thoughts, dispels them, does not let them rise again; and reflecting wisely does not entertain whatever arisen demeritorious evil thoughts, dispels them, does not let them rise again. Bhikkhus, to one not dispelling these may arise desires and burning, [but] to one dispelling them desires do not arise. These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dispelling.

“Bhikkhus, what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development? Here, the bhikkhu wisely reflecting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mindfulness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investigation of the Teaching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effort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joy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ending in surrender.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tranquillity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concentration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And Wisely reflecting, he develops the enlightenment factor equanimity based on seclusion, detachment and cessation and ending in surrender. Bhikkhus, to one not developing these may arise desires of burning and distress, to one developing them these desires do not arise. These desires should be turned out by development.

“Bhikkhus, when the bhikkhu turns out those desires which should be turned out by wise reflection,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restraint,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indulging,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enduring,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avoiding,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dispelling and turns out those desires that should be turned out by development, it is said that the bhikkhu, abiding restrained in all desires, has overcome craving, dispensed the bonds, and rightfully ending measuring made an end of unpleasantness.”

The Blessed One said thus and those bhikkhus delighted in the words of the Blessed One.